

부탁했네. 그래도 두 사람 각자에게는 따로 지낼만한 안식처가 필요했지. 마르그리트의 오막살이집은 분지 한가운데, 정확히는 그녀 뒤편으로 택한 땅의 경계에 있었네. 나는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라 투르 부인의 땅에다가 집 하나를 더 지었어.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이웃으로 가까이 지내면서도, 각자 자기 가족 뒤편의 소유지에서 살게 되었다네. 내가 말일세, 손수 울타리로 쓸 나무를 산에서 베어오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라타니아 야자 나뭇잎을 가져오기도 해서 이 두 오두막을 지었는데, 이제는 보다시피 문짝 하나, 지붕 한쪽 보이지 않는다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 기억의 뒤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생생히 남아 있는데! 제국의 유적조차 그토록 빠르게 허물어버리는 시간이, 이 버려진 땅에서는 옛 자취로 남은 저 우정의 터전을 받드는 듯하네. 그리하여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회한이 사무치도록 말이야.

두 번째 오두막집이 다 지어졌을 무렵, 라 투르 부인은 딸을 낳았네. 나는 마르그리트가 낳은 아이의 대부였고, 아이의 이름은 풀이었어. 라 투르 부인은 내게 마르그리트와 머리를 맞대고 자기 딸의 이름도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 마르그리트는 부인의 딸에게 비르지니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이렇게 말했네.

“현숙한 사람이 되어 행복할 겁니다. 정조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불행을 겪었으니 말이에요.”